

2018년 1월 20일, 대정읍 일과1리 강여순 씨 댁, 이현정 조사.
강여순(여, 1930년생, 대정읍 일과1리)

- 줄거리: 일과1리 남쪽에 장수원물이라는 물통에 도깨비가 잘 나타났다. 하루는 비가 올 것 같아 밖에서 말리던 고구마를 덮으려고 갔다가 푸른 도깨비불 여러 개를 보았다. 장수원물에서 나타난 도깨비불은 멀리 날아가서 소나무 아래나 쌓인 나무더미에 가서 박히는데, 이때는 여러 개로 갈렸던 불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.

[조사자] 도체비 얘기나 해줄서. 이 동네에 도체비 막 잘 나납디가?

[제보자] 도체비. 이 동넨 나지 안 혔어. 옛날이나 나주. 이제는 도체비고 아무 것도 아 이나. 이 동네는 동네 에염에 율로 요영 헹 가민, 그 장수원물 알아져? 장수원 물 이펜이 이디. 이제 회관 짓은 융으로 영 가믄 소낭밧 으만이 헌 거 셔. 소낭 밧. 큰 거 아니 족은 거. 그디. 그디 우리 밧이 싯주게. 밧이 시냔.

저 비오람직 허민 밤이 나 이거 춤 엿말 곤저. 뗏데기이 감저 뗏데기 알아져?
거 널엉 비오람직 허민 덮으레 가젠 허민. 무서와도. 비니루 덮을 때 문 가믄 도 체비가이 저 불이 발강허지 아녜. 영 파리롱허메. 파리롱헷다그네 막 벌거져 썩 허게 벌거젖당 다시 하나로 쪼꼬만 헷당 어드레 쭉 허게 들을 땐 시 개. 니 개 연부(nn) 막 돌아.

돌아가민 다시 어디 강 영 허는 거 보믄. 소낭 강알에나 어디, 나무 막 짓은 디. 깨끗힌디 아니, 그런 데 가그네 콕콕 박아질 때엔 ㅎ나라. 경 허영 우리 옛 날에 그디 도체비 잘 나.

[조사자] 장수원물 주갓디가 도체비가 잘 나마씨?

[제보자] 응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장수원물, 비, 소낭밧(소나무밭), 불, 밤